

<<내신 기출, 언어와 매체 지학사-상편>>

◆차례◆

I. 언어, 매체, 삶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 1쪽 (30문제)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 14쪽 (16문제)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1. 음운 ----- 21쪽 (145문제)
2. 단어와 품사 ----- 62쪽 (190문제)
3. 문장과 문법 요소 ----- 119쪽 (42문제)
4. 담화 ----- 134쪽 (6문제)

III.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2.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 138쪽 (2문제)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1. 국어의 역사 ----- 147쪽 (37문제)

▶정답 -----156쪽

▶해설 -----159쪽

(버전: 2020.09.19.)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I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인간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 등, 인간의 삶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사고	사고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언어는 인간의 사고방식뿐 아니라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침.
언어와 사회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를 발전시킴.
언어와 문화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이며, 그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를 반영함.

① 언어와 사고

-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계: 언어 능력의 신장과 지적 능력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짐.
- 예)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면, 언어를 습득하면서 지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그 영향으로 언어 능력 수준도 높아지게 됨.
-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언어는 인간의 사고방식뿐 아니라 세계관에도 영향을 미침.
- 인간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언어: 인간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는 관점(홀볼트)에서 볼 때,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정신 활동, 공동체의 얼을 담고 있음.

② 언어와 사회

- 언어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수단: 인간은 언어로 의사소통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를 발전시킴.
- 언어에 반영된 사회적 특성: 언어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드러남.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지역에 따라 언어의 형태를 달리함. 예) '팽이'는 지역에 따라 '패이(강원)', '핑깡이(경북)', '팽데기(경남)' 등으로 불림.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차이로 인해 같은 뜻을 지닌 언어가 형태를 달리함. 예) 어린아이들이 '까까, 맘마'라고 말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사회 방언임.

- 언어 사용과 공동체 의식의 상호 보완 관계: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되고, 같은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

③ 언어와 문화

-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언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긴밀하게 관련됨.
예) '간장, 온돌, 부럼' 등의 말이 다른 언어에 없는 것은, 그 언어 공동체에는 그러한 문화가 없기 때문임.
- 동일한 지시물에 대해서 문화에 따라 언어적인 차이를 보이는 예도 있음.
예) '농사짓는 땅'과 관련하여 영어권에서는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patch, plantation), 우리말에서는 작물에 따라 다름(밭, 논).
-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여 축적하는 기능을 하는 언어: 문화는 언어를 도구로 하여 전승되고 축적됨.

I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기호적·구조적 특성

① 언어의 기호적 특성

	<p>구성하는 내용과 형식, 곧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p> <p>예)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소리(형식)가 ‘[집]’(한국어), ‘house[하우스]’(영어), ‘maison[메종]’(프랑스어), ‘家[지아]’(중국어) 등으로 나라마다 다름.</p>
사회성	<p>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공동체 내의 일정한 약속이므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예) ‘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 [길]을 누군가가 [골]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길’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음.</p>
역사성	<p>역사(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변하고, 그에 따라 신생(新生), 성장(成長), 사멸(死滅)하는 언어의 특성</p> <p>예) • ‘마음’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마슴’이라는 형태였음. (형태의 변화) • ‘어리다’는 과거에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씀. (의미의 변화)</p>
분절성	<p>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함.</p> <p>- 실제 말소리는 연속적인 음파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음, 모음과 같은 음소로 나누어 인식하고, 그러한 음소를 묶어서 형태소, 단어 등으로 인식함.</p> <p>- 의미 면에서도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함.</p> <p>예) 무지개의 색깔은 연속적이지만 언어에서는 일곱 가지 색깔로 끊어서 표현함.</p>
추상성	<p>언어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무한하여서 언어는 대상들 사이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함.</p> <p>예) ‘꽃’이라는 말소리의 의미는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내는 과정, 즉 추상화를 통해서 형성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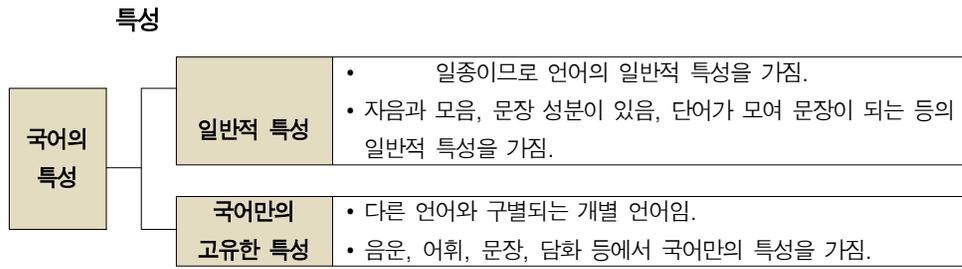
언어의 기호적 특성 가운데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② 언어의 구조적 특성

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음운으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 내고, 이를 활용하여 무한한 문장과 글을 생성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 • 언어의 창조성은 체계적인 언어 기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발휘됨. <p>예)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배운 아이는 “너는 학교에 간다.”, “나는 우체국에 간다.”와 같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말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냄.</p>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단위마다 일정한 내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언어의 특성
규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단위들이 아무렇게나 연결되어서 더 큰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이루도록 규칙이 적용됨. <p>예)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말해야지, “나는 학교한테 간다.”나 “학교는 간다. 나를.”과 같은 것은 언어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 단위들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체계성을 토대로 구현됨.

※ 언어의 체계성과 규칙성을 토대로 할 때 유한한 기호로써 무한한 표현을 생산하고 해석하는 창조성이 이루어짐.

I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① 음운적 특성

- ㄱ, ㄷ, ㄹ 등,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가짐.

예) ㄱ-ㄱ-ㄱ / ㄷ-ㄷ-ㄷ

- 영어를 포함한 많은 인국어(인도에서 유럽에 걸친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들이 유성음과 무성음이 대립되는 자음 체계를 보이는 것과 구별되는 국어의 음운적 특성임.

② 어휘적 특성

-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분 체계를 가짐.
-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상징어가 풍부하게 발달함.
- 색채와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함.

예)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셋노랗다, ...

- 성별, 연령, 상하 관계 등에 따라 친족어와 호칭어들이 섬세하게 분화됨.

③ 문법적 특성

- 높임 표현이 발달함. 담화 상황에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말을 듣는 상대에 관해 일정한 문법 요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문법적 특성을 보임.
- 기본 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이루어짐.

④ 담화적 특성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 어순을 따르되, 담화 상황에 따라 어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음.

② 세계 속의 한국어

① 한국어와 언어 사용 인구 순위: 7천여 개의 언어 중 13위

※ 중국어(1위): 12억 / 스페인어, 영어, 힌디어: 1억 명 이상

② 어휘적 특성

- 한국은 경제적인 규모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필요도 커져 한국어의 위상 또한 높아지고 있음.
 -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친근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
 - 세종학당: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
- 세종학당의 역할: 재외 교포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어(言語)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제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중략>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데 밥 주세요.”와 같이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다)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 낸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도 다르다.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추’는 지역에 따라 ‘정구지(경상, 전북, 충청), 졸(충청), 솔(경남, 전남), 분추(강원, 경북, 충북), 쉼우리 (제주), 염지(함경)’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한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시대,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학, 건축,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다. 나라마다 형제자매 사이를 나타내는 어휘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말은 성별과 순위·손아래뿐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성별도 구분하여 8개 이상의 어휘로 나타낸다. 영어는 성별만을 구분하여 2개의 어휘로 나타낸다. 말레이어는 구분 없이 1개의 어휘로만 나타낸다. 이는 남녀와 상하 관계를 더 뚜렷이 구분하여 격식을 차리는 우리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어휘나 원색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는

것, 사면이 바다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언어에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는 것 또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언어 또한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 밑글에 드러나는 언어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언어의 사회성 ② 언어의 역사성
- ③ 언어의 기호성 ④ 언어의 자의성
- ⑤ 언어의 창조성

광성고등학교 (서울)

2. 밑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언어를 통해 세대를 유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이룬다.
- ③ 계층적 차이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 ④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언어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 ⑤ 사회 양상의 차이에 따라 언어의 모습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밑글과 관련하여 <보기> 기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인 가구 시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물론 영화에서도 1인 가구가 아주 많이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각종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혼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혼족’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밥족’,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행족’, 혼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혼캠족’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또,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편도족’이라고 부르고, 햄버거 같은 즉석 음식점에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을 ‘벽세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두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증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다. ‘개인주의의 심화’는 25%였다. 즉,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 <뉴스워치> 2016년 9월 29일 자 기사

- ① 언어와 문화가 무관하게 별개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② ‘혼족’, ‘혼밥족’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1인 가구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 ③ ‘1인 가구 시대’라는 사회적 현상이 언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 ④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⑤ ‘1인 가구’ 현상이 사회·경제적 요인을 결정하고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랑’이라는 개념을 국어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러브 (love)’, 일본어에서는 ‘아이[愛]’, 프랑스어에서는 ‘아무르(amour)’라고 한다. 만약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어느 언어에서나 ‘사랑’이라는 대상이 같은 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처럼 언어는 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특성을 지닌다.

- ① ‘뽕’은 포르투갈어의 ‘pão[팡]’를 차용한 외래어이다.
- ② ‘음악’을 ‘츄’이라고 부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③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 ④ 표준어로는 ‘감자’라고 부르는 식물을 제주도 방언에서는 ‘지실’이라고 부른다.
- ⑤ ‘지흥이는 지금 행복해.’라는 문장을 ‘지흥이는 행복 지금해’라고 말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어의 ‘라이스(rice)’는 꽤나 불친절한 단어이다. 때로는 ‘벼’, 때로는 ‘쌀’, 때로는 ‘밥’을 뜻한다.

갈무리해 놓은 낱알 중에 실한 놈을 잘 말려 겨울을 난 후 싹을 틔워 못자리에 붓는다. 적당한 길이만큼 자라면 모를 찢어 모내기를 한다. 애벌, 두벌, 세 벌의 김을 매며 잘 키우면 그것이 벼다. 가을이 되어 알곡이 누렇게 익고 이삭이 고개를 숙일 때쯤 베어 낱알을 떨어내면 그것도 벼다. 방앗간에서 왕겨를 벗겨 내면 현미가 되고 다시 몇 차례 등겨를 벗겨 내면 백미가 되는데 이것을 쌀이라 부른다. 쌀을 안쳐 불을 때다 뜸을 들이면 비로소 밥이 된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세세히 분화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저 라이스일 뿐이다. 삼시 세끼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밥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다시 볼 일이다.

‘요리를 하다’와 마찬가지로 ‘밥을 하다’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밥을 짓다’가 제격이다. 음식은 그저 ‘만들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지만 밥만은 ‘만들다’를 쓰지 못하고 ‘짓다’를 쓴다. ‘짓다’는 집, 옷, 짚, 농사, 매듭, 이름, 죄 등을 목적으로 삼아 ‘만들다’보다는 좁은 영역에서 쓰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대상에 대해 쓴다. 밥도 ‘짓다’를 쓰니 밥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 ‘뜸’은 밥을 지을 때만 활용하게 되는 독특한 조리법인데, 그 뜸이 일상에서 ‘뜸을 들이다’란 말로 쓰이고 있으니 이 역시 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래저래 밥이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진 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①우리에게 밥은 그저 음식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음식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밥이 있어야 국과 찌개, 그리고 반찬이 의미가 있다. 밥이 밥상의 중심이기에 밥이 결국 음식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밥은 우리 삶의 원천이자 음식의 출발점이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5. 윗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벼의 낱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이 될까?
- ② 영어의 ‘라이스(rice)’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 ③ 한국인과 서양인이 ‘밥’에 대해 갖는 인식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 ④ ‘라이스(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가짓수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 ⑤ 우리에게 ‘밥’이 삶의 원천으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광성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 ‘벼’, ‘밥’을 모두 ‘라이스(rice)’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서구에는 밥에 대한 관념이 없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밥 먹자’라고 할 때에 ‘밥’은 단순한 ‘라이스(rice)’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군.
- ③ ‘밥’을 ‘짓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인에게 ‘밥’이 매우 중요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영어의 ‘라이스(rice)’와 달리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는 우리 말 ‘밥’에는 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⑤ 대상에 대한 애착이 그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화된 표현을 만들어 낸 것이군.

광성고등학교 (서울)

7.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가 차려 주시는 밥이 그리워.
- ② 내일 밥 약속은 참석하기 어렵겠어.
- ③ 밥 지을 때 뜸들이는 걸 깜박했어.
- ④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
- ⑤ 언제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시지요.

대광고등학교 (서울)

8.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필’을 개인 마음대로 ‘흰 연필’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없다.
- ② ‘집에 오다’는 바른 표현이지만, ‘집에 먹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③ 과거에 사용하던 ‘뫼’라는 고유어는 ‘산(山)’이라는 한자어로 바뀌었다.
- ④ 한국어에서는 ‘사람’이라 일컫는 대상을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한다.
- ⑤ ‘벼에서 껍질을 벗겨 낸 알맹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쌀’이라는 문자와 [쌀]이라는 음성을 사용한다.

대광고등학교 (서울)

9. <보기>를 통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엄마, 우유.”라고 말하던 아이가 차츰 말이 늘어 “엄마, 우유 주세요!”라고 말한다.

(나) 남자가 “나는 내일부터 너를 사랑했어.”라고 말하자 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해 돌아갔다.

(다) “비가 오는데, 슈룹(우산)도 없이 가다니 참 어엿브네(가역네).”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 ① (가)는 기존의 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든 경우이다.
- ② (나)는 언어로 표현할 때에는 일정한 체계와 규칙을 따라야 함을 보여 준다.
- ③ 모두가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혼자 ‘공책’이라 부르는 경우도 (나)의 예시로 볼 수 있다.
- ④ (다)는 언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 ⑤ (다)에서 ‘어엿브네’는 의미가 변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言語)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를 말한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며,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때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도 고와진다.’라는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담긴 표현이고, ‘저기여기’나 ‘국외내’와 같은 표현보다 ‘여기저기’나 ‘국내외’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자라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

I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개념

- 말과 글 등의 소통 수단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발달시켜 옴.
- 사회 규모가 커지고 생활 양식이 복잡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의사나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생김.

입과 귀, 눈과 손을 중개하는 제3의 소통 수단, 즉 매체(媒體, media)가 필요하게 됨.

- 일반적 개념: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서 정보의 전파력을 크게 높인 수단을 가리킴.

② 매체의 유형과 특성

① 매체의 발전: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

발명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술의 발명으로 개인 차원에 머물던 소통 범위가 비약적으로 넓혀짐. • 인쇄술의 발달로 책,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가 대중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소통 수단이 나타남. •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전자 매체가 발달함.

② 매체의 유형과 특징

유형	종류	특징
시각 매체	책, 잡지, 신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함. • 시간의 구애 없이 전체를 보며 해석할 수 있음. • 정보 전달 속도가 느림.
청각 매체	전화, 라디오, 녹음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에 의존하는 전달 매체 •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 해석해야 함.
시청각 매체	텔레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모두 지니면서 시각, 청각, 동영상 자료가 유기적으로 조직됨. • 전달 속도가 빠르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함.
뉴 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누리 소통망(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이동 통신과 연결된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복합 양식 매체 • 신속성, 대량성, 양방향성, 복합 양식성, 복제 가능성, 연결성 등의 특성을 두루 지님.

• 매체의 분류

기록하는 양식에 따라	인쇄 매체, 전자 매체
정보의 유형에 따라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
전달 범위에 따라	개인 매체, 대중 매체
소통 양상에 따라	단방향 매체(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양방향 매체(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누리 소통망(SNS) 등)
목적과 기능에 따라	언론 매체, 광고 매체, 누리 소통망(SNS) 등

I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언어의 개념

① 매체 언어: 매체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언어

② 매체 언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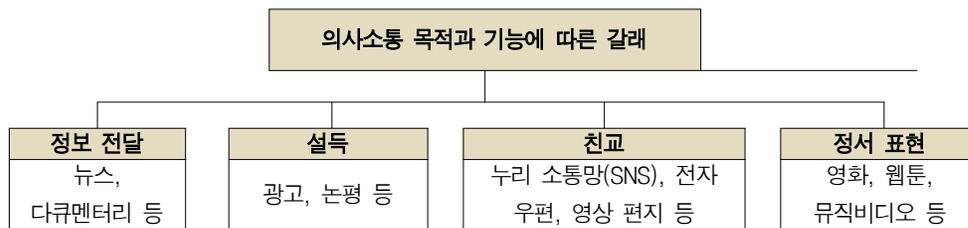
- 언어는 말과 글뿐 아니라 소리, 이미지, 영상 등으로 의미를 전달하므로 언어의 기호적 구조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기도 하며 새로운 특성이 더해지기도 함.

예) 이미지나 소리 중심인 매체 자료: 언어의 분절성, 추상성 약화 - 구체성이 드러남.

- 시간적 규칙, 곧 요소의 순서에 의존하는 음성 언어와 달리 공간적 규칙이 강조되기도 함.
- 대중 매체 같은 경우에는 대량성이 강조됨.
- 매체 문식성: 매체에 익숙해져서 매체로 소통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매체 문화를 누리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

② 매체 언어의 갈래와 특성

① 매체 언어의 갈래



② 매체와 갈래에 따라 자료의 구성 방식과 소통 특성이 달라짐.

예) 텔레비전 - 뉴스, 예능, 드라마 등의 구성 방식이 다름.

뉴스 - 신문 뉴스,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뉴스인지에 따라 구성과 소통 방식이 다름.

③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매체 언어의 비교

	언어	문자 언어	매체 언어
전달 수단	음성 + 비언어·준언어적 표현	문자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
시공간 범위	제한됨.	제한되지 않음.	제한되지 않음.
의사소통의 상황 의존성	높음.	낮음.	유동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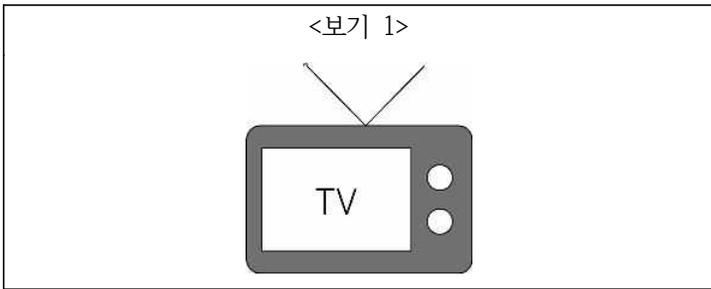
③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매체

① 현대 사회 소통의 특징

기준	특징
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도 줄어들. 예) 전화나 전자 우편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실시간으로 대화 가능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의 범위와 파급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지고 강해짐. 예) 책,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가 등장하면서 수만, 수억의 사람과 소통이 가능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통신 기술에 힘입은 뉴 미디어는 복합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현상을 낳음. 개방적인 소통 생태계의 형성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지식의 공유, 집단 지성의 발휘 등이 가능해짐. 표절이라든지 가짜 뉴스, 개인 정보 침해 현상 등의 부작용들이 나타남.

금명여자고등학교 (부산)

1. <보기 2>는 <보기 1>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내용은 모두 고른 것은?



<보기 2>

ㄱ. 정보의 전달과 수용이 쌍방향적이다.
 ㄴ. 제작과정이 복잡하여 정보 제공의 속도가 느리다.
 ㄷ. 동일한 정보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ㄹ. 다양한 언어 양식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ㄱ,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체의 개념

최초의 인류는 주로 음성으로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문자가 발명되면서 문자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점차 활발해졌다. 오늘날에는 기술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으려면 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친구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는 음성이 필요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는 휴대 전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경로를 매체라고 한다. 즉, 매체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다.

매체의 유형과 특성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서 시작하여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뉴미디어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음성 언어에 의한 소통은 말하기를 중심으로 억양, 어조,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소통 방식이다. 대체로 사람들 사이에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면 대 면 소통으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과는 소통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문자를 사용하면서 지식을 기록하고 축적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음성 언어의 한계였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인쇄 기술의 발달로 책을 대량으로 출판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신문과 같은 새로운 인쇄 매체가 등장했다.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의 간접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매체가 등장했다.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와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 매체가 그것이다. 음성 매체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영상 매체는 음성 매체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문자와 이미지, 영상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할 수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면 대 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수단인 음성 언어와 확연히 다르다. 특히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는 문자해독 능력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수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 책이나 신문과 달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과 이들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를 뉴미디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이 대표적인 뉴미디어의 예에 해당한다. 뉴미디어는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기존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기도 한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뉴미디어는 여러 사람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과 면 대 면 소통, 간접적 소통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

뉴미디어의 등장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대인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초의 인류는 매체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 ② 친구와 주고받는 ‘안녕’이라는 인사도 매체 언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③ 음성 언어에 의한 소통은 면 대 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문자를 사용하면서 음성 언어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 외에도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였다.

대인고등학교 (인천)

3. 윗글을 참고하여 다음 매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D영화란 3D 영상에 물리적인 움직임 등이 가미된 영화를 말한다. 영화의 영상에 입체적인 시각효과를 준 3D 영화에 비행, 이동 등 동적 움직임까지 가미해 공간적인 입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극장 안에 실제 비눗방울이 나온다는지, 영상 속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관객의 의자가 흔들린다는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에서 바람이 부는 등 실감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

- 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 ② 매체에 대한 해독 능력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수용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편이다.
- ③ 기존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④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⑤ 음성 매체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영상, 촉각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할 수 있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4.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기 등의 현대적 매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 ③ 현대의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소리, 이미지, 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만든다.
- ④ 인터넷은 문서로 보관되던 기록들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여, 정보 유실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 ⑤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파급력이 확대되었으며,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정보의 확산 속도도 빨라졌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5. 매체별 정보전달 방식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 : 정제된 내용을 편집하여 인쇄 과정을 거쳐 제작되므로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느리다.
- ② 라디오 : 다른 일을 하면서도 청취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재난 시 비상 방송, 교통 정보 방송 등 특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텔레비전 : 제공되는 정보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다.
- ④ 신문 : 지면의 제약 때문에 책만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 ⑤ 이동 통신 기기 : 다른 매체에 비해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6. 다음 중 오늘날의 매체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에 심미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 ②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 ③ 개인적 의사소통의 성격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성격에 동시에 가져가기도 한다.
- ④ 개별 언어의 특성만을 이해하고 있어도 자료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데에 충분하다.
- ⑤ 복합 양식적인 경향을 가지며,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에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성심여자고등학교 (서울)

7. 다음의 각각은 어떤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리키는 매체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다른 매체에 비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 ② 문자와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인쇄 매체이다.
- ③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였다.
- ④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비교적 분량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시할 수 있다.
- ⑤ 정제된 내용을 편집하여 인쇄 과정을 거쳐 제작되므로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 제공의 속도가 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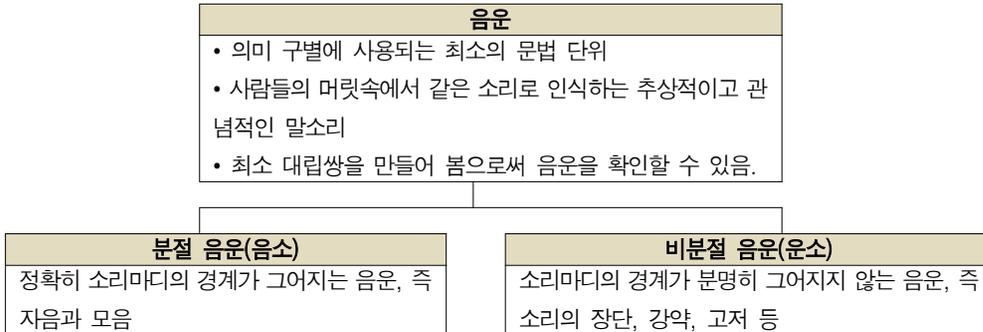
II-1. 음운

개념

① 음향과 음성

(소리)	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 중 울음소리, 기침 소리, 재채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하여 나오는 말소리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

② 음운의 개념과 체계



- 대립쌍: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 예 '달-말', '볼-벌', '설-섭'
- 최소 대립쌍에서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요소로 예를 들어, '달-말'에서의 'ㄷ'과 'ㄹ'을 음운이라 함.

③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입술소리 (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구강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유음			ㄴ			
비강음	비음	ㅁ	ㄴ		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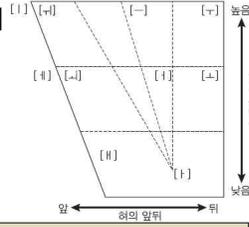
- 조음 위치/방법: 자음이 만들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방법
-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예사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소리(격음)
-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른 분류: 울림소리(유성음), 안울림소리(무성음)
- ※ 비음과 유음은 항상 유성음으로 발음됨.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은 기본적으로 무성음이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는 유성음으로 발음되기도 함.

II-1. 음운

체계

모음

목청을 통과하면서 목청이 떨어 올리게 되면, 그것이 입안에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① 단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 모양이 일정한 10개의 모음.

혀의 높이 \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ㄱ	ㅡ	ㅈ
중모음	ㅓ	ㅕ	ㅑ	ㅊ
저모음	ㅗ		ㅓ	

• 혀의 앞뒤 위치

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후설 모음	입천장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혀의 높이

고모음(폐모음)	입이 조금만 열려서 혀의 위치가 입천장 가까이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중모음	고모음과 저모음의 중간쯤 되는 모음
저모음(개모음)	입이 많이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을 때 발음되는 모음

• 입술의 모양

원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모음
평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 표준 발음법 제4항의 붙임에 따르면 ‘ㅕ, ㅑ’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② 이중 모음: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11개의 모음

• 반모음 ‘j’ 또는 ‘w’: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함.

※ 참조: 상향 이중 모음과 하향 이중 모음

상향 이중 모음	‘j’+단모음	ㅈ[ja], ㅊ[jɐ], ㅊ[jo], ㅊ[ju], ㅊ[jɛ], ㅊ[je]
	‘w’+단모음	ㅊ[wa], ㅊ[wɐ], ㅊ[we], ㅊ[we]
하향 이중 모음	단모음+‘j’	ㅏ[+j]

II-1. 음운

- 모음이 어떤 환경에서 없어지는 현상

단순화	끝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닭[닥], 막다[막따], 삶[삼:], 젊다[점:따], 읊다[읍따] 넋[넉], 앓다[안따], 여덟[어덜], 외곶[외골/웨골], 할다[할따], 값[갑]
'ㄹ' 탈락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ㄹ'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다[놀:-]: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동글다: 동그니, 동근, 동급니다, 동그시다, 동그오
'ㅎ' 탈락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다: 날아[나아], 날은[나은] 좋다: 좋아[조:아], 좋은[조:은]
'-' 탈락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다: 아파서, 아팠다

③ 첨가

- 일정한 환경에서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
- 'ㄴ' 첨가: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음절 모음이 'ㅣ, ㅍ, ㅋ, ㅌ, ㅍ'인 경우에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음.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숨 + 이불 → 숨이불[숨:니불] → 꽃 + 잎 → 꽃잎[꼇닙] → 합성어 영업 + 용 → 영업용[영업똥] → 파생어 맨 + 입 → 맨입[맨닙] → 파생어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일[한닐] 웃 입다[웃닙따]

① 단모음: 발음하는 동안 입 모양이 일정한 10개의 모음.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꺄	ㅡ	ㅍ
중모음	ㅕ	ㅖ	ㅑ	ㅗ
저모음	ㅙ		ㅓ	

※ 참조: 사이소리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앞 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일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예) 초 + 불 → 촛불[초뿔/촛뿔], 배 + 사공 → 뱃사공[배싸공/뱃싸공], 논 + 독 → 논둑[논뿑], 길 + 가 → 길개[길까], 밤 + 길 → 밤길[밤깁], 등 + 불 → 등불[등뿔] 사이소리 현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음.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되, 다음의 6개 한자어만 사이시옷을 붙임. →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①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
 - 자음 축약: 'ㄱ, ㄷ, ㅂ, ㅈ'과 'ㅎ'이 서로 만나면 'ㅍ, ㅌ, ㅊ, ㅋ'(거센소리)이 되는 현상
- 예) 좋고 → [조:코], 놓다 → [노타], 쌓지 → [싸치], 먹히다 → [머키다],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잡히다 → [자피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 <보기>의 ㉠~㉣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탈락은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래 단어들을 통해 탈락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 달으니 → [다으니], 달아 → [다아]

㉡ 말+소 → 마소[마소]

㉢ 따르(다)- + -아 → [따라]

㉣ 열(다)- + -니 → [여니]

㉤ 담그- + -아도 → [담가도]

- ① ㉠은 ‘ㅎ’을 끝소리로 가지는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ㅎ’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 ② ㉡의 ‘마소’는 ‘말’과 ‘소’가 만나 파생어가 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 ㉢은 모음 ‘-’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아’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어서 ‘-’가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 ④ ㉣은 ‘열다’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조음 방법을 가진 두 음운이 만나 ‘ㄹ’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 ⑤ ㉤은 ‘담그다’가 활용할 때, 용언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첫소리가 동일하여 ‘-’가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2. 밑줄 친 단어를 발음했을 때 일어나는 동화 현상의 방향이 다른 단어는?

- ① ‘거짓말을 하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에서 ‘곤란’
- ② ‘여기는 강릉 아이스하키장입니다.’에서 ‘강릉’
- ③ ‘이제 기름 난로는 잘 쓰지 않아.’에서 ‘난로’
- ④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다.’에서 ‘잡는다’
- ⑤ ‘쌈니다 천리마 마트’에서 ‘천리마’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보기1>은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설명이고, <보기2>는 이를 보고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이다. <보기2>에서 올바르게 탐구한 학생을 모두 고르면?

<보기1>

제4항 ‘ㄱ, ㅋ, ㆁ, ㆁ, ㄴ, ㄴ, ㄷ, ㄷ, ㄹ’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ㄴ, ㄷ’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ㅈ, ㅉ, ㅊ, ㅊ, ㅅ, ㅆ, ㅌ, ㅌ, ㅍ, ㅍ, ㅍ, ㅍ, ㅍ’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쨌, 처]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오아→와, 지어→져, 지어→져,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11항 겹받침 ‘ㄹ, ㄹ,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보기2>

- 진주 : ‘길에서 금괴를 주웠다.’의 ‘금괴’는 4항을 참고할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겠군.
- 범수 : ‘그러다 크게 다쳐’의 ‘다쳐’는 5항의 ‘다만 1’ 규정에 따라 [다쳐]로 발음해야 하는군.
- 은정 : 5항의 ‘다만 4’를 참고할 때, ‘교수님 강의의 내용’에서 ‘강의의’는 [강이에], [강이이], [강의에] 등으로 발음할 수 있군.
- 재훈 : 5항과 6항을 고려할 때, ‘밥을 지어’의 ‘지어’는 [저]와 같이 장음으로 발음하겠군.
- 소민 : 11항의 ‘다만’을 참고 할 때, ‘하늘은 맑고 푸르다’에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하겠군.
- 효봉 : 11항 전체를 고려할 때, ‘침도’, ‘웁고’, ‘늉거나’를 발음할 때는 모두 겹받침 ‘ㄹ’이 탈락하겠군.

- ① 진주, 범수, 소민
- ② 범수, 재훈, 효봉
- ③ 진주, 범수, 재훈, 소민
- ④ 범수, 은정, 재훈, 효봉
- ⑤ 진주, 범수, 은정, 재훈, 소민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0. 밑줄 친 단어의 표준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벌써 한여름[한녀름]이 지나갔네.
- ② 식탁 위에 있는 물약[물략] 좀 가져오렴.
- ③ 추워지니까 흙이불[흔니불]을 정리해야겠다.
- ④ 주말 동안에 결막염[결마겸] 치료를 받아야겠어.
- ⑤ 가을이 되니 가랑잎[가랑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1. <보기>를 참고할 때 구개음화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보기>

- 구개음화의 조건
- 조건1 : [ㄷ], [ㄷ]은 앞 형태소의 끝소리여야 한다.
- 조건2 : [ㄷ],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의 앞에 와야 한다.
- 조건3 : 모음 'ㅣ'나 반모음 'ㅇ'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여야 한다.

- ① 굳이 ② 만이
- ③ 끝이 ④ 발일
- ⑤ 달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2. 다음의 ㉠~㉣의 단계별 활동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동녘, 산, 옷, 꽃, 말, 점, 앞, 공

- (1) 발음할 때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알아 보자. ㉡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단어들을 몇 가지 더 찾아보자. ㉣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 ① ㉠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산, 옷, 말, 점, 공'이다.
- ② ㉡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③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뀐다.
- ④ ㉣ : '각도'와 '끝'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ㅂ, ㅇ'만 발음 된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3. <보기>는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과 관련한 조항이다. 이를 보고, ㉠~㉣을 각 조항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1-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1-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2-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2-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3. 두 음절로 된 한자어

㉠ 나룻배	㉡ 횡수	㉢ 제삿날	㉣ 장맛비
㉠ 잇몸	㉡ 훗일	㉢ 곳간	㉣ 깻잎
㉠ 나뭇잎	㉡ 콧날	㉢ 틈간	㉣ 깻병

1-1 2-1 3

-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광성고등학교 (서울)

14. <보기1>~<보기3>을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답안을 서술하시오.

<보기1>

만형 → [마텟]

('ㅎ' 축약)

<보기2>

꽃잎 → [꼴잎] → [㉠] → [㉡]

(㉠) (㉡) (㉢)

<보기3>

앞마당 흙이불 앞마당 샅일 맨입 부엌일

II-2. 단어와 품사

품사의 뜻

공통된 단어들끼리 모아 갈래를 지은 것

◎ 품사의 분류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가변어	용언	동사
		형용사

◎ 품사의 분류 기준

• 형태 기준에 따른 분류

불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예) 손, 우리, 매우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	용언, 서술격 조사 예) 먹 - (먹고/먹으니/먹으면), 예쁜 - (예쁘고/예뻐서/예쁜), 이다(이고, 이니)

• 기능 기준에 따른 분류

체언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으로 쓰임.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임.	동사, 형용사
수식언	문장에서 주로 다른 성분을 수식함.	관형사, 부사
관계언	여러 성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줌.	조사
독립언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임.	감탄사

• 의미 기준에 따른 분류: 9품사

명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쓰임.
수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냄.
동사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냄.
형용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관형사	주로 체언을 수식함.
부사	주로 용언, 관형사, 다른 부사 등을 수식함.
조사	주로 체언에 붙어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냄.
감탄사	말하는 사람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냄.

II-2. 단어와 품사

： 명사, 대명사, 수사

- :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며, 때로는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부류의 단어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함.
- 체언의 특징
 -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임.
 -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없음. → (불변어)
 -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 복수형을 취할 수 있음.(단, 수사는 복수형을 취할 수 없음.)

① 명사: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기준	종류	정의	예시
범위	보통 명사	명사 중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	방, 오빠, 사과, 하늘, 책
	고유 명사	명사 중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인명, 지역명, 상호 등	순이, 이순신, 부산, 한강, 대한 중학교
자립성	자립 명사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사과, 이순신
	의존 명사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것, 따름, 마리, 뿐, 뻔

②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

지시 대명사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예) 이것, 그것, 저것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예) 여기, 거기, 저기
인칭 대명사	1인칭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 예)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朕)
	2인칭	화자가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3인칭	화자와 청자 이외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예) 그, 이분, 저분, 그분, 이이, 그이
미정칭	가리킴을 받는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예) 누구, 어디
부정칭	특정한 지시 대상이 아닐 때	예) 아무개, 아무것, 아무데
재귀칭	앞에 한 번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예) 저, 자기, 당신(주로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킴.)

③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양수사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어 계열: 1~99까지 예) 하나, 둘, 셋 • 한자어 계열: 모두 가능함. 예) 일, 이, 삼
서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어 계열: '-째'를 붙임. 예) 첫째, 둘째, 셋째 • 한자어 계열: '제(第)'를 붙임. 예) 제일, 제이, 제삼

II-2. 단어와 품사

： 동사, 형용사

문장의 주어에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로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에 해당함.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움직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임.
-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나 청유형 어미 ‘-자’,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러’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임.

① 동사: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그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	예) 뛰다, 걷다, 가다, 놀다, 공부하다
타동사	움직임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치는 동사	예) 끝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
주동사	어떤 동작을 자기 스스로 행하는 동사	예) 먹다, 앉다
사동사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동사	예) 먹이다, 앉히다
능동사	움직임이 스스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동사	예) 잡다, 밀다
피동사	움직임이 남의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사	예) 잡히다, 밀리다

② 형용사: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성상 형용사	성찰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예) 고요하다, 달다, 예쁘다, 향기롭다
지시 형용사	지시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예) 이리하다, 그러하다, 처리하다, 어찌하다

③ 용언의 활용: 용언이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에는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고정된 부분
- 어미: 용언의 어간 뒤에 결합하는 다양한 형태들
 -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의 앞자리에 들어가는 어미로, 시제(-시-, -옵-), 높임(-았-, -는-, -더-, -겠-) 등을 나타냄.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이 올 수도 있음.
 - 어말 어미: 단어의 끝자리에 들어가는 어미로, 반드시 있어야 함.
- 어말 어미의 기능에 따른 분류

종결 어미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다, 구나, 니?)
연결 어미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바람이 불(면, 어서) 우리는 연을 날렸(다).
전성 어미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어미	예) 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청춘이 아름답(게) 피었다

II-2. 단어와 품사

：관형사, 부사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관형사와 부사가 수식언어에 해당함.

① 관형사: 체언(주로 명사)을 수식하는 단어

관형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예 새 옷, 흰 책, 순 살코기
지시 관형사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	예 이 의자, 그 사람, 저 자전거
수 관형사	수량이나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는 관형사	예 세 사람, 연필 다섯 자루, 일곱째 딸, 제삼(第三) 회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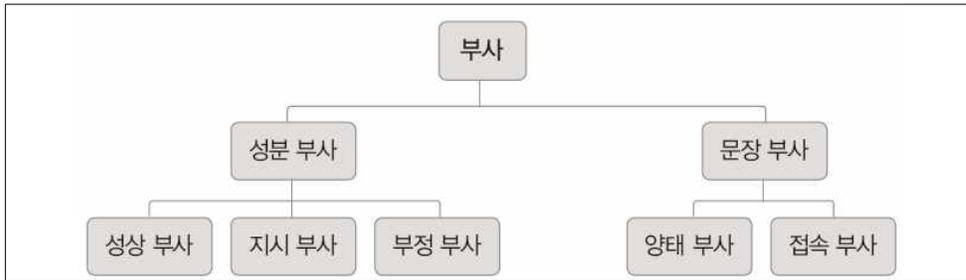
• 관형사의 특성: 형태가 변하지 않고(용언과 구별),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체언과 구별).

※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의 품사: 해당 단어의 뒤에 조사가 붙으면 수사이고, 그렇지 않고 체언을 꾸며 주면 관형사(수 관형사)임.

예 오늘은 다섯이나 지각을 했다.: 조사가 붙어 '다섯'은 수사(체언)임.

연필 다섯 자루: '다섯'은 조사가 붙지 않고 체언 '자루'를 꾸며 주는 수 관형사(수식언)임.

② 부사: 용언이나 관형사,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것을 본래의 기능으로 하는 단어



• 부사의 특성

- 형태 변화를 하지 않음. → (불변어)
-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로 쓰임.
-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 격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보조사는 취할 수 있음. 예 자꾸만, 아직도

• 성분 부사: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

성상 부사	부사'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 등을 꾸미는 부사로, 의성 부사(소리를 흉내 내는 부사)와 의태 부사(모양을 흉내 내는 부사)가 여기에 속함.	예 잘, 매우, 바로, 아삭아삭, 사뿐사뿐
지시 부사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	예 이리, 그리, 저리
부정 부사	부정의 뜻을 가진 부사	예 못, 아니/안

※'바로, 다만, 특히, 오직, 겨우, 아주' 등은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음.

예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 부사 '바로'가 용언 '떠났다'를 수식함.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사 '바로'가 체언(대명사) '그것'을 수식함.

•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양태 부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	예 다행히, 과연, 설마
접속 부사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는 부사	예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II-2. 단어와 품사

④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의존 형태소로, 조사가 여기에 해당함.

• 조사의 개념과 특성

- 대개 체언 뒤에 붙지만, 때로는 동사,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기도 하고, 문장 뒤에 붙기도 함. 예 꽃이 예쁘게도 피었구나. / 그저 빨리만 오너라. 빨리요?
- 관형사나 감탄사 뒤에는 붙을 수 없음.
-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함.
- 조사 결합의 제약: 대부분 명사는 거의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나, 일부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는 각 조사와 결합할 때 제약을 받는 일이 있음. 예 떠드는 바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친구들이 떠드는 통에 공부를 못 하겠다.

① 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

조사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가, 게서	을/를	의	이/가	에, 에게, 에서	아, 야	이다
자격	주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	부사어	독립어	서술어

예 아버지께서 부엌에서 동생의 간식을 만드신다. / 물이 얼음이 된다.

주격 부사격 관형격 목적격 조사 주격 보격 조사

※ 보격 조사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앞에 오는 체언이 보어가 되게 함.

② 보조사: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보조사	은/는	만, 뿐	도	요	부터	까지	조차	밖에	마저
의미	대조	한정, 단독, 유일	역시	상대 높임	시작, 먼저	도급, 미침	역시, 최종	한계	추종, 끝

예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한정 역시 대조 대조

※ 보조사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함.

③ 접속 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접속 조사	와/과	하고	(이)랑
쓰임	주로 문어에서 쓰임.	주로 구어에서 쓰임.	

예 봄이 되면 개나리(와, 하고, 랑)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핀다.

접속 부사

⑤ 독립언: 감탄사

독립언은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이 있는 단어로, 감탄사가 여기에 해당함.

① 감탄사: 부르는 말, 느낌을 나타내는 말, 대답하는 말로 쓰이면서 독립성이 있는 말

감탄사	여보, 애	앗, 허허, 저런, 아이고, 흠	네, 응
쓰임	부르는 말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대답하는 말

※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감탄사임.

예 "학생!"이라고 부를 때, '학생'은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감탄사가 아님.

II-2. 단어와 품사

단어

예)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어절 단위의 분석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단어 단위의 분석	꽃	사이	로	발자국	을	찾아	나서면				
형태소 단위의 분석	꽃	사이	로	발	자국	을	찾-	-아	나	서-	-면

- 띄어 쓰는 단위
- 단어: 어절을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부분과 조사로 분석하였을 때, 그 분석된 각각을 말함. 즉,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인정함.
- 형태소: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

기준	종류	개념	예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쓰일 수 있음. → 체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분류되는 형태소	발, 자국
	의존 형태소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음. → 용언의 어간과 어미, 조사, 접사로 분류되는 형태소	을, 찾-, -아, 나-, 서-, -면
의미의 유형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 체언, 수식언, 독립언 및 용언의 어근으로 분류되는 형태소	발, 자국, 찾-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진 형태소 → 조사, 어미, 접사	을, -아, 나-, 서-, -면

① 명사: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분류 기준	종류	정의	예시
사용 범위	보통 명사	명사 중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	방, 오빠, 사과, 하늘, 책
	고유 명사	명사 중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인명, 지역명, 상호 등	순이, 이순신, 부산, 한강, 대한 중학교
자립성	자립 명사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사과, 이순신
	의존 명사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것, 따름, 마리, 뽀, 뽀

※ 한자는 각 글자를 하나의 형태소로 봄.

② 단어의 구조

① 어근과 접사

자동사	단어의 구성 요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군말: <u>군-</u> + 말 어근
타동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어근 앞에 붙을 때는 '접두사', 어근 뒤에 붙을 때는 '접미사'라고 함.	•지우개: 지우- + -개 어근 접미사

② 직접 구성 성분: 단어를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누어 나온 구성 요소

불꽃놀이				시부모			단팔죽			잠꾸러기			↳ 직접 구성 성분
불꽃	놀이		시	부모		단	팔죽		잠	꾸러기			
불	꽃	놀-	-이	시-	부	모	단	팔	죽	자-	-꾸러	기	

형성



- :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 예 산, 하늘, 맑다
- 복합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졌거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합성어와 파생어가 속함.

① 합성어: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 통상적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국어의 문장이나 배열 구조(명사+명사, 관형어+명사, 주어+서술어, 부사어+용언 등)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 밤낮(밤+낮: 명사+명사)
- 새해(새+해: 관형어+명사)
- 본받다(본+받다: 목적어+서술어)
- 뛰어가다(뛰- + -어+가다: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국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이나 결합 방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 덮밥(덮- +밥: 용언의 어간+명사)
- 높푸르다(높- +푸르다: 용언의 어간+용언)

※ 합성어 중에는 구(句)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예)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합성어 / 우리 마을,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누나: 구

② 파생어: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접두 파생어: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접두사는 어근에 일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함.)

- 헛기침(헛- +기침)
- 군침(군- +침)
- 새파랗다(새- +파랗다)
- 치솟다(치- +솟다)

•접미 파생어:

어근의 뒤에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접미사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기도 하고,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함.)

- 바느질(바늘+ -질: 어근과 파생어의 의미 차이가 생김.)
- 구경꾼(구경+ -꾼)
- 많이(많- + -이: 형용사 → 부사)
- 웃기대(웃- + -기- +다: 주동사 → 사동사)

II-2. 단어와 품사

만들기

① 새말의 필요성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과 사물이 생기면 그것을 가리킬 새말이 필요함.

②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식

확장, 혼성, 축약, 파생, 대치 등을 들 수 있다. 확장의 방식은 형태나 의미 측면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형태적 측면에서만 일어난다.

- 의미 측면의 확장: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방식

예) '군살빼기(조직 사회에서 불필요한 인력이나 기구를 줄이는 일)' 등

- 형태: 기존 단어를 두 개 이상 결합하여 만드는 방식

예) '배꼽티', '재택근무' 등

- 혼성: 의미나 어형이 비슷한 두 단어의 일부를 합쳐서 만드는 방식

예) '무추(무 + 배추)', '컴맹(컴퓨터 + 문맹)' 등

- 파생: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드는 방식

예) '세불리기', '깜빡이', '도우미' 등

- 대치: 기존 단어의 한 부분을 다른 요소로 바꾸는 방식

예) '노래/대화/멀티 + 방', '공주/왕자 + 병', '가격/서열/직종 + 파괴' 등

③ 새말을 만들 때의 유의점과 예시

새말을 만들 때는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에 맞도록 하고, 차용어보다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만들어 쓰는 것이 좋음.

만들기	, 인생템, 탕진잼, 어깨깡패, 꿀성대	
파생어로 만들기	접두 파생	무꺼플
	접미 파생	기러기족, 싹싹이, 시간이동기
축약	카테크[← 카(car)-테크놀로지(technology)]짬짜면(← 짬뽕-짜장면) 강퇴(← 강제 퇴장)아나바다(운동)(← 아껴 쓰다-나누어 쓰다-바꾸어 쓰다-다시 쓰다)	
완전히 새로운 소리로 만들기	므랍, 시간이동기	
차용어	타임머신, 텔레비전	

II-2. 단어와 품사

의미의 유형

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의미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 → 사전에 풀이된 의미들 가운데 첫 번째 의미
주변적 의미	다의어에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 → 사전에 풀이된 의미들 가운데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의 의미

②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전적 의미	단어가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곧, 사전에 등재된 의미 예) '산(山)'의 사전적 의미: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
함축적 의미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 예) '산(山)'의 함축적 의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진취적인 기상, 삶의 고난과 역경 등

③ 그 외 단어의 의미

사회적 의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로, 여러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사회적 환경: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교양 수준 등)
정서적 의미	화자(필자)의 심리적 태도나 어조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
주제적 의미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발음함으로써 화자(필자)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
반사적 의미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 예) '한송이(韓松伊)'라는 이름: 원래의 뜻과 관계없이 꽃과 관련된 의미를 불러일으킴.

④ 단어 간의 의미 관계

① 유의 관계

-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로,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함.
 - 유의 관계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예) 가끔-더러-이따금-드문드문-때로-간혹-혹간-간간이-왕왕
가난하다-빈곤(貧困)하다-빈궁(貧窮)하다-어렵다-곤궁(困窮)하다-궁핍(窮乏)하다

② 반의 관계

-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로,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함.
-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공통됨.

예	
'총각 : 처녀' → 반의 관계	총각 [+ 미혼][+성인][+ 남성]
'총각 : 아주머니' → 반의 관계가 아님.	처녀 [+ 미혼][+ 성인][- 남성]
	아주머니[- 미혼][+ 성인][- 남성]

③ 상하 관계

-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이때 포함하는 단어가 상위어, 포함되는 단어가 하위어임.
 -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상위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위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님.
- 예) 직업 : 작가 → '직업'이 상위어, '작가'가 하위어 / '작가 : 시인' → '작가'가 상위어, '시인'이 하위어

광성고등학교 (서울)

1. <조건>을 참고하여 <보기1>과 <보기2>의 빈 칸을 채우시오.

<보기1>

단어들 가운데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을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이라고 한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 (㉢), (㉣)이 그것이다.

<보기2>

(㉠)	(㉡)	(㉢)
불변어	(㉤)	(㉥)
		(㉦)
		(㉧)
	(㉨)	(㉩)
		(㉪)
		(㉫)
(㉬)	(㉭)	조사
	(서술격 조사)	
	(㉮)	(㉯)

<조건>

- <보기1>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적을 것.
- <보기1>의 ㉠~㉣에 들어간 말을 고려하여 <보기2>의 ㉠~㉮까지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적을 것.
- ㉥, ㉦, ㉧ / ㉩, ㉪, ㉫ / ㉭, ㉮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가 없음.

광성고등학교 (서울)

2. 다음 <보기>의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했을 때 각각의 개수로 적절한 것은?

<보기>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화를 덮는다.

단어	형태소
① 23	30
② 24	31
③ 25	32
④ 25	33
⑤ 26	33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보기>의 대화를 보고,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성원 : 선생님, 저는 형태소를 분류하는 것이 늘 어려워요. 형태소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 성원이가 형태소를 분류하는 기준이 헷갈리는 모양이구나. 그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까?

-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 ㉠ 자립 형태소: 혼자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 의존 형태소: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 실질적인 뜻의 유무에 따라
- ㉢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의미만을 표시하는 형태소

성원 : 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선생님 : 그럼 아래의 문장을 형태소를 분석해볼래?
 “단풍이 지는 계절, 가을이 왔다!”
 성원 : 위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 실질 형태소는 ㉡입니다.
 선생님 : 성원이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구나.

*단, 한자어는 음절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을 것.

	㉠	㉡
㉠	단풍/이/지/는/계절/가을/이/왔/다	단풍/지/계절/가을/왔
㉡	단풍/이/지/는/계절/가을/이/왔/다	단풍/계절/가을
㉢	단풍/이/지/는/계/절/가/을/이/오/왔/다	단풍/지/계절/가을/오
㉣	단풍/이/지/는/계절/가을/이/오/왔/다	단풍/계절/가을
㉤	단풍/이/지/는/계절/가을/이/오/왔/다	단풍/지/계절/가을/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광성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가)와 (나)의 밑줄 친 단어가 공통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 네 말이 맞는지 꼼꼼하게 들어 보았어.
 •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인가 싶어.

(나)
 • 먹을 것 좀 줄래?
 • 내일은 일찍 일어날 수도 있어.

- ① 문장 내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② 문장 내의 다른 요소에 의존적으로 사용한다.
- ③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준다.
- ④ 부사어의 수식을 주로 받는다.
- ⑤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5. <보기>를 바탕으로 문장의 품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권남훈이라고 합니다. 품사 단원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아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왜죠?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 ㉠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의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답변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예요. 학생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 뒤에 조사와 결합하기 때문에 대명사지만, ㉡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이처럼 형태가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었나요?

- ① '학생들이 일곱 명이나 오지 않았다.'에서 '일곱'의 품사는 ㉠과 같다.
- ② '거기가 어디입니까?'에서 '거기'의 품사는 ㉡과 같다.
- ③ '너를 하늘만큼 사랑해.'에서 '만큼'의 품사는 ㉠과 같고, '저런 일이 생기니 놀랍다'에서 '저런'의 품사는 ㉡과 같다.
- ④ '어제가 우리의 1일이다.', '누나가 어제 미국으로 떠났다.'에서 '어제'는 모두 같은 품사이다.
- 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으로 나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에서 '꿈'은 모두 같은 품사이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6. 다음 <보기>의 글을 읽고 용언의 '어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면?

<보기>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어미는 자립성과 실질적 의미가 없지만 이들이 맡은 문법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는 문장의 종결과 연결이라는 기능을 결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보태기도 한다. 어미에는 그 어미로써 한 단어가 끝나는 어말 어미와 그 뒤에 반드시 다른 어미가 와야만 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뛰겠다. 뛰겠고'에서 가장 끝에 있는 '-다, -고'는 어말 어미이며, 어간 '뛰-'와 어말 어미 '-다, -고' 사이의 '-겠-'은 선어말 어미이다.

- ① 은지 :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군.
- ② 해리 : 문장의 연결을 결정하는 어미는 선어말 어미이군.
- ③ 혜수 : '어제 다 끝났겠다.'에는 선어말 어미가 두 개 쓰였네.
- ④ 다은 : '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시다.'에서 '-시-'는 선어말 어미겠네.
- ⑤ 미정 : '지금 꽃무릇이 한창이겠다.'에서 '-겠-'은 선어말 어미겠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7. 품사 분류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태는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를 말한다.
- ②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차별적인 의미를 말한다.
- ③ 기능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말한다.
- ④ 품사는 단어들 가운데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을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말한다.
- ⑤ 형태에 따라 2가지, 기능에 따라 5가지, 의미에 따라 9가지로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그는 ㉡바로 ㉢앉아 버렸다.
 • 날 알아주는 ㉢분은 선생님㉣뿐이다.

- ① ㉠은 지시관형사로 수식언어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② ㉡은 부사로 뒤의 '앉아 버렸다'를 수식한다.
- ③ ㉢은 동사로 분용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인칭대명사로 주로 조사와 결합한다.
- ⑤ ㉣은 의존명사로 주로 체언과 결합한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9. <보기>의 ㉠와 밑줄 친 단어를 비교했을 때, 그 기능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언어와 매체㉠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

- ① 영희가 사과 두 개를 샀다.
- ② 철수가 가져온 것은 책이다.
- ③ 이 마을에서 대통령까지 나왔다.
- ④ 철수가 우리 집 고양이를 불렀다.
- ⑤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를 먹을 수 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0. <보기> 중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이 가능하다.
 ㄴ. 형용사와 달리 모두 규칙적으로 활용된다.
 ㄷ. 종결 어미 '-는다/-니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ㄹ.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성질을 나타낸다.
 ㅁ.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와 결합이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ㄱ, ㄷ, ㅁ
- ⑤ ㄷ, ㄹ, ㅁ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1. <보기>의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① '내가'에는 형식 형태소가 두 개 있다.
- ② '주었을 때'에는 의존 형태소가 두 개 있다.
- ③ '그의 이름을'은 실질 형태소가 두 개 있다.
- ④ '꽃이 되었다.'는 자립 형태소가 두 개 있다.
- ⑤ '나에게로'는 총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었다.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2. <보기>의 ㉠~㉣ 중,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른 단어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가장 다른 것은?

<보기>

동생이 ㉠흰옷만 있어서 엄마가 ㉡바느질을 했다. 동생은 ㉢새파란 천을 가져와서 검은 천에 ㉣덧붙이자고 했지만, 엄마는 흰색이 더 좋다고 하얗게 만들었다. 동생은 흰색이 얼룩이 잘 안 진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 ① ㉠ ② ㉡
- ③ ㉢ ④ ㉣
- ⑤ ㉤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3. <보기>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영수 : '새롭다'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 철희 : '꽃사과'의 '꽃-'은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 영철 :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 태영 : 어근에 접사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만들어지며 '맨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민성 : 어근은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말하며 체언에서만 찾을 수 있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
- ⑤ ㉢, ㉣, ㉤

동대전고등학교 (대전)

14. 단어 형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굳은살'은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 준다.
- ② '구멍가게'는 어근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 경우이다.
- ③ '굳말'의 '굳-'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고 특정한 뜻을 더해 준다.
- ④ '피보'의 접사 '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며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 ⑤ '여닫다'는 어근이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등하게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전체 정답>>

1-(1) 언어와 국어의 이해

1.② 2.④ 3.③ 4.④ 5.⑤ 6.① 7.③ 8.① 9.③ 10.③
11.① 12.② 13.④ 14.④ 15.⑤ 16.② 17.③ 18.⑤ 19.
② 20.⑤ 21.㉠ 된소리 ㉡ 마찰음 ㉢ 스프링 22.③
23.④ 24.① 25.④ 26.(A)는 사물의 이름에 따라 같은
그림을 다르게 기억해 그렸기 때문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B)는 '배고프다'는 정보 때문에
'먹었다'라고 연상하여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7.③ 28.언어는 그 언어
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
다. 29.② 30.③

1-(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1.⑤ 2.① 3.② 4.④ 5.③ 6.④ 7.③ 8.② 9.② 10.③
11.㉠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
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인쇄 매체이고, ㉡은 소리, 음
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영
상 매체이다. 12.대상의 얼굴 부분을 크게 클로즈업
하여 표정이 잘 나타나게 연출한다. 13.③ 14.⑤ 15.
① 16.④

2-(1) 음운

1.③ 2.② 3.① 4.① 5.⑤ 6.① 7.③ 8.⑤ 9.① 10.④
11.④ 12.③ 13.⑤ 14.1) ㉠ 끈넙 ㉡ 끈넙 ㉢ 음절 끝
소리 규칙 ㉣ 'ㄴ'첨가 ㉤ 비음화 2) 홀이불, 부엌일
15.③ 16.② 17.③ 18.⑤ 19.⑤ 20.④ 21.㉦ 닥짱에는
가빈는 달기 만타. ㉧ 엽짱 밤만 마덱따. 22.㉨ 반니
랑, ㉩ '이랑'이 실질형태소이기 때문이다. 23.① 24.
② 25.③ 26.④ 27.② 28.④ 29.⑤ 30.③ 31.① 32.㉪
의, 에 ㉫ 의, 에 ㉬ 의 ㉭ 의 ㉮ 의, 이 33.① 34.②
35.③ 36.④ 37.⑤ 38.④ 39.③ 40.③ 41.⑤ 42.② 43.
④ 44.① 45.② 46.희한한, 잠가, 아기가, 붙이고 47.
⑤ 48.㉠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열녀선 ㉢ 유음화
49.③ 50.① 51.② 52.③ 53.② 54. ① 55.④ 56.② 57.
⑤ 58.③ 59.④ 60.② 61.① 62.④ 63.㉯ ㄴ첨가 ㉰
비음화, 꽃잎, 색연필 64.① 65.② 66.④ 67.④ 68.①
69.② 70.⑤ 71.② 72.㉱[읍꼬]는 자음군 단순화, 음
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73.⑤ 74.
② 75.① 76.④ 77.⑤ 78.④ 79.② 80.㉲ '물놀이'는
[물로리]로 발음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유음화이다. ㉳ '꽃잎'은 [꽃입]→[꽃넙]→[꽃넙]으로
발음되는데, 이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음절 끝소
리 규칙과 'ㄴ'첨가, 비음화이다. ㉴ '들었다'는 [드려

다]→[드려따]로 발음되는데, 이 때 일어나는 음운 변
동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이다. 81.② 83.
② 84.② 85.④ 86.② 87.⑤ 88.④ 89.⑤ 90.④ 91.⑤
92.① 93.② 94.④ 95.⑤ 96.④ 97.② 98.② 99.①
100.③ 101.② 102.⑤ 103.① 104.② 105.④ 106.⑤
107.③ 108.④ 109.(가) 우리말에서는 유성음과 무성
음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p]와 [b]를 같은 음운으로
인식한다. (나) 우리말에서는 [r]과 [l]을 같은 음운
'ㄹ'로 인식한다. 110.⑤ 111.③ 112.② 113.⑤ 114.
① 115.㉷는 제10항과 제14항에 근거하여 [갑씨]로
발음한다. ㉸는 제10항과 제15항에 근거하여 [너겁
따]로 발음한다. ㉹는 제11항과 제15항에 근거하여
[다가페]로 발음한다. 116.④ 117.A: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B: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118.③ 119.④ 120.① 121.① 122.⑤
123.② 124.③ 125.②⑤ 126.④ 127.③ 128.④ 129.③
130.①② 131.④ 132.④ 133.② 134.① 135.② 136.㉺
있습니다, [있습니다]→[읷습니다]→[읷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 듯합니다, [듯합
니다]→[듯합니다]→[드탐니다]→[드탐니다], 음절의 끝
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비음화 ㉼ 까마득한, [까마
득한]→[까마드칸], 거센소리되기 ㉽ 차, '차아→차',
'ㅏ' 탈락 137.③ 138.③ 139.③ 140.⑤ 141.③ 142.①
143.② 144.④ 145.⑤

2-(2) 단어와 품사

1.㉠ 품사 ㉡ 형태 ㉢ 기능 ㉣ 의미 ㉤ 가변어 ㉥ 체
언 ㉦ 수식언 ㉧ 독립언 ㉨ 관계언 ㉩ 용언 ㉪ 명사
㉫ 대명사 ㉬ 수사 ㉭ 관형사 ㉮ 부사 ㉯ 감탄사 ㉰ 동사
㉱ 형용사 2.② 3.⑤ 4.② 5.⑤ 6.② 7.② 8.②
9.③ 10.② 11.③ 12.① 13.① 14.④ 15.⑤ 16.새, 신
발, 을, 더, 빨리, 수 17.① 18.⑤ 19.① 20.① 21.②
22.③ 23.㉲ -거라, -어라, -아라 ㉳ 그림거라 ㉴ 불가
능 ㉵ 형용사 ㉶ -자 ㉷ 행복하자 ㉸ 불가능 ㉹ 형
용사 24.① 25.② 26.(1) 마소 (2) 병렬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고, 융합적 합성어로 볼 수도 있는 것은 '돌
아가다'이며, '돌아가다'는 돌아서 가다는 뜻으로 쓰
일 경우 병렬적 합성어이지만, '죽다'라는 의미로 쓰
일 경우 융합적 합성어이다. 27.③ 28.(1) ㉠ 수사 ㉡
관형사 (2) ㉢ 언니, 옷 ㉣ 가, 에서, 을 (3)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단어의
형태가 변한다. 29.③ 30.④ 31.① 32.④ 33.② 34.④
35.⑤ 36.⑤ 37.단어: 맑은, 하늘, 에, 갑자기, 비구름,

<<전체 정답>>

이, 꺾다. 형태소: 맑, 은, 하늘, 예, 갑자기, 비, 구름, 이, 끼, 었, 다. 38.② 39.④ 40.⑤ 41.⑤ 42.검붉다, 굵 주리다, 늦더위, 꺾쇠 43.① 44.③ 45.① 46.④ 47.③ 48.④ 49.② 50.① 51.④ 52.⑤ 53.③ 54.② 55.③ 56. ① 57.정아, 수빈 58.⑤ 59.③ 60.⑤ 61.⑤ 62.② 63. ⑤ 64.③ 65.④ 66.② 67.⑤ 68.① 69.② 70.① 71.④ 72.④ 73.(1) '군말'의 접두사인 '군-'은 '쓸데없는'이라 는 뜻을 더한다. (2) '길이'는 형용사인 '길다'의 어근 '길-'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이'가 결합해 명사 가 되었다. 74.② 75.③ 76.① 77.④ 78.③ 79.③ 80. ④ 81.⑤ 82.① 83.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 는-'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드는구나'는 '힘들 구나'로 고쳐야 한다.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알맞는'은 '알맞은'으로 고쳐 야 한다. 84.(1) '딸바보'는 명사인 어근 '딸'에 어근 인 명사 '바보'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로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뜻한다. (2) '강추'는 머리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뜻이다. 85.⑤ 86.④ 87.⑤ 88.④ 89.③ 90.④ 91.③ 92.① 93. ② 94.② 95.⑤ 96.③ 97.③ 98.④ 99.① 100.① 101. ① 102.⑤ 103.② 104.④ 105.③ 106.④ 107.② 108. ③ 109.② 110.① 111.⑤ 112.① 113.⑤ 114.③ 115. ④⑤ 116.② 117.① 118.(1) ㉠ '미닫이'는 구개음화에 의해 [미다지]로 발음된다. ㉡ '홀이불'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홀이불]로, ㉢ 첨가에 의해 [홀니불]로, 비음화에 의해 [홀니불]로 발음된다. (2)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변하는 것이다. ㉣의 '-이'는 형 식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의 '이불'은 실질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19.(1)우리(대명사)/학생(명사)/은(조사)/모두(부사)/멋 지고(형용사)/모교(명사)/의(조사)/위상(명사)/을(조사)/ 드높일(동사)/것(명사)/이다(조사) (2) '-고', '-르', '-다' (3) 어근은 '높-'이고, 어간은 '드높이-'이다. 120.(1) ㉠'닫다' ㉡'잠그다' (2) ㉢은 '굽--+은+밤'으로 형성된 합성어이고, ㉣은 '군--+말'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이때 ㉢의 '군'은 '굽다'의 뜻이고, ㉣의 '군-'은 '쓸데 없는'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121.⑤ 122.③ 123.② 124.④ 125.⑤ 126.③ 127.(1) 격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이다. (2) 주 격 : 하늘(이) 푸르다. 목적격 : 그가 물(을) 마신다. 보격 : 얼음이 물(이) 되다. 서술격 : 우리는 고등학생 (이다). 관형격 : 나(의) 소원은 국어 시험 100점이다.

부사격 : 우리는 부산(에서) 출발했다. 호격 : 민지 (야). 뭐해? 128.② 129.④ 130.③ 131.③ 132.① 133. ② 134.④ 135.③ 136.⑤ 137.④ 138.(가)처럼 영어는 어순에 의해 문장 성분이 결정되지만, 국어는 (나)처 럼 어순이 아니라 조사에 의해 문장 성분이 결정된 다. 139.㉠'밖에'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쓰지만, ㉡'밖에'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것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40.'코웃음'은 '코'와 '웃음'으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그리고 '웃음'은 '웃-'과 '-음'으로 분석되 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코웃음'은 그 직접 구성 요 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나들이웃'은 '나 들이'와 '웃'으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그리고 '나들 이'는 '나들-'과 '-이'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 로 '나들이웃'은 그 직접구성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 인 합성어이다. 141.② 142.⑤ 143.⑤ 144.② 145.㉠ '크--+기'로 형용사 어근에 접사 '-기'가 붙어서 명사 로 파생되었다. ㉡ '오--+시--+기'는 동사 어간 '오-' 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명사형 전성어미 '- 기'가 붙은 동사의 명사형이다. 146.㉠ 양태부사, "다 행히 '낭독 봉사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47.④ 148.(1) 나들이(나들--+이, 파생어) (2) 갈림길 (갈림+길, 합성어) (3) 울음보(울음+-보, 파생어) (4) 놀이터(놀이+터, 합성어) (5) 군것질(군것+-질, 파생 어) 149.⑤ 150.② 151.① 152.통사적 합성어는 '뛰어 놀다, 첫사랑'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등산, 검붉다, 굵주리다, 부슬비'이다.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의 방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국어 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구성 을 가진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53.⑤ 154.④ 155.높임법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감각어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고유어와 함께 한자어와 외래어를 많이 사 용하기 때문이다. 156.① 157.① 158.② 159.④ 160. ③ 161.② 162.② 163.④ 164.③ 165.④ 166.② 167. ② 168.⑤ 169.② 170.③ 171.④ 172.⑤ 173.⑤ 174. ④ 175.② 176.② 177.㉠ 있습니다, [있습니다]→[일습 니다]→[일씀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 듯합니다, [듯합니다]→[들합니다]→[드탑니 다]→[드탑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 비음화 ㉢ 까마득한, [까마득한]→[까마드칸], 거센소 리되기 ㉣ 차, '차아→차', 'ㅈ' 탈락 178.③ 179.② 180.⑤ 181.③ 182.④ 183.③ 184.④ 185.④ 186.③ 187.② 188.② 189.⑤ 190.①